

인문정보자료실  
CPk1.8.4

문국진씨 고문사건 신문스크랩

인문정보자료실  
CPk1.8.4

## 문국진씨 고문사건 신문스크랩

1. 고문 추방위해 제도 개선을 - 피해자 사례보고회서 가족들 참혹한 증언 (1994.4.12)
2. 고문후유증 사례보고회 "전문치료센터 마련해야" (조선, 1994.4.12)
3.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인권하루소식, 1994.4.12)
4. 검-경 고문등 가혹행위 피해, 국가상대 잇단 손배소 (조선, 1993.11.9)
5. 투옥과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 5공이 남편에게 남긴 고통 안타까워 (시민의 신문, 1993.7.17)
6. (만평) 어서 오십시오, 이번은 평화의 댐, 울곡감사코스에 이허 56공 고문의 실상 코스입니다 (한겨레, 1993.9.19)
7. 눈물마저 빼앗아버린 '고문망령' (한겨레, 1993.7.20)
8. 과거는 물어야한다 (문화, 1993.7.23)
9. 민주화운동 헌신결과가 고문후유증이라니... (복음신문, 1966.4.18)
10. 좌경서적 출판등 14명 구속 (조선, 1986.4.15)
11. 좌경이념서적 출판 14명 구속 (동아)
12. 구속출판인 가족20명 교회협 사무실서 농성 (한국, 1986.4.23)
13. 문국진-윤연옥씨 부부, 군사정권에 겪은 내 삶을 들려주오 (월간 말, 1993.9)
14. 청춘 앗아간 군사정권하 고문의 상흔, 문국진-윤연옥씨 부부 (동덕여대학보, 1993.9.6)
15. '고문피해' 잇단 소송준비 (한겨레, 1993.9.19)
16. '고문근절'로 인권보호 새시대를 (한겨레, 1993.9.20)
17. 문국진씨 고문피해 문제의 현황과 전망 - 시국사건으로 구속, 정신이상증세로 여섯 차례나 입원 (연세춘추, 1993.9.27)
18. 고문피해소송제기에 즈음한 경과보고회 및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발족식 - 문국진씨 고통 외면하는 이 사회의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첫걸음 (인권하루소식, 1993.10.14)
19. 5공연행 충격 정신이상 여대생 가족 탄원 - 살아남은게 죽은것만 못합니다 (1993.10.15)
20. 가혹행위로 정신질환, 국가상대 2억손배소 (경향, 10.16)
21. 경찰조사받다 정신질환 30대, 2억 손배소송제기 (한겨레, 10.16)
22. 고문 후유증 문국진씨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 (1993.11.18)
23. 문국진씨 고문수사 진상아는분 연락을 (1993.12.10)
24. 인권 침해 언제까지... (1988.6.18)
25. '서경원의원사건' 방양균씨 안기부 수사관·검사 고소, '성고문' 문귀동씨 또 불법영업 (1993.12.15)
26. 고문피해자에게도 성탄의 기쁨을!! (새누리신문, 1993.12.25)
27. CBS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송년특집 '93년 인권상황 점검' 문국진씨 부인 윤연옥씨 첫회 출연 (인권하루소식, 1993.12.28)
28. 고문후유증 국회에 청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인권하루소식, 1993.12.29)
29. 파괴돼가는 삶과 함께 할터 - 고문후유증 남편과 함께 해온 윤연옥 씨 (새누리신문, 1993.10.23)
30.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 있었을 것 - 문국진씨 신체감정서 (인권하루소식, 1994.3.24)
31.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인권하루소식, 1994.4.8)
32.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1994.4.9)
33. 고문, 삶을 파괴하는 제도폭력 - 문국진이 살아내는 '고문의 삶'
34. 아직도 고문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사회평론 길, 1993.10)
35. 고문 피해자 병원 설립해야 (새누리, 1993.10.13)
36. '악령의 세월' 배상하라 - 고문당해 정신병 앓는 문국진씨 소송... 진상 규명·고통 분담 절실 (시사저널, 1993.10.28)
37. 삼청교육대 심사위원 양심고백 - 그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결정 (내일신문, 1996.5.29)
38. 배인오가 밝힌 프락치 활동 일지
39.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인권하루소식, 1994.6.9)
40. 영등포교도소는 괴롭다 - 박석진씨 가혹행위 및 징벌권 남용 손배소송제기 (인권하루소식, 1994.8.6)
41. 오늘 고문방지조약 발표 - 고문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 (인권하루소식, 1995.2.8)
42. 발가벗긴 채 또 고문 - 성동경찰서, 차별단속 항의 노점상 구속 (인권하루소식, 1995.8.29)
43.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한 의결 (동아, 1994.9.23)

4/12 P4

# “고문 추방위해 제도 개선을”

## 피해자 사례보고회서 가족들 참혹한 증언

잠 안재우기, 고춧가루 탄 자장면 먹이기, 담뱃불로 지지기, 밧줄로 묶고 때리기 그리고 자살기도로 이어지는 정신이상증세.

수사기관의 밀실에서 자행되는 가혹한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례보고 및 고문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강당에서 법조계와 의료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한 뒤 정신병원을 떠돌며 후유증을 앓고 있는 문국진(34)씨 후원모임이 주최한 이날 모

입에서 참석자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육체를 파괴하는 고문은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는 남편과 동생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참혹한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토론회장은 탄식과 울분이 뱀 한숨으로 가득 찼다.

86년 11월 거리시위중 경찰에 끌려가 쇠파이프 등으로 구타당한 뒤 영등포구치소에서도 고춧가루를 탄 자장면 먹이기 고문을 당한 강환웅(30·당시 중앙대 1)씨의 누나 강희숙(33)씨는 “동생이 출소한 뒤 환청에 사로잡히는 등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며 울먹였다.

같은 해 4월 시위 도중 연행돼 구치소로 넘겨진 뒤 징발방에 갇혀 집단구타를 당한 김복영(29·당시 연세대3)씨의 누나(33)는 “너희들은 항상 나의 뇌수에 칼집을 꽂고 나의 꿈은 항상 피비린내로 얼룩졌다”고 써놓은 복영씨의 일기장을 읽으며 흐느끼기도 했다.

이날 고문추방을 위한 법적 문제를 발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해철 변호사는 “인간의 안내를 시험하는 고문을 추방하기 위해 자백의 증거능력부정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강문 기자

7.12 P4 4/12

고문후유증 사례보고회  
전문치료센터 마련해야  
“전문치료센터 마련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강남구 서초동「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강당에서「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 고문당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성수의원 안국중환자문호사들이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환자 상태를 점검해주는 등 고문에 혈소한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며「고문당한 사람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재활센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と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지난 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金鍾걸씨 부인 뚝모씨 등이 나와 고문후유증 사례를 폭로했다. <金鴻基기자>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볼테르)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가 11일 오후 4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등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육체를 파괴하는 고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혜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 고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백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또 고문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공소시효의 부당성 등을 고문방지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형사절차의 관여자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때만이 고문은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길승(인도주의 실천의 사협의회)씨는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이란 발표문에서 "고문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인간의 인간됨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라며 '고문 피해를 치료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 예정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50주년 기념 준비위' 발기인 총회에서 "오는 임시국회에 서 동의를 받는대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 문제는 한 외무장관이 작년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서 기초연설을 통해 93년 안에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오완호(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우섭(민주당 정책실장)씨가 참석했다. 오완호씨는 고문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폭로와 여론조성' (2면에서 계속)

지금까지 연기돼 왔었다. 협약에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고문피해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원상회복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또 정부가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1년 이내에 이행보고서, 이후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협약에 가입시 유보조항을 들 것인지는 관련부처간에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 ◆ 공 판 안 내 ◆

- 4월 12일(화)
  - 이순심, 폭력남편 살해, 10시, 수원지법 110호, 2회
  - 조정희, 군부이탈, 2시, 육군고법, 1회, 항소심
  - 조희성, 특정가림, 2시, 318호, 1회
  - 김희중, 독점규제·공정거래법, 10시, 423호, 속행
- 4월 14일(목)
  - 임홍천의 2, 살인등, 10시, 311호, 1회
  - 조계은, 국가보안법, 2시, 311호, 1회
  - 박소영, 국가보안법, 2시, 311호, 1회
- 4월 15일(금)
  - 박범진, 국회의원선거법, 10시, 403호, 선고, 항소심
  - 김대양, 업무방해, 10시, 318호, 1회
  - 김신민의 1, 업무방해, 11시, 318호, 속행
  - 이정부의 1, 배임수재, 11시, 422호, 속행
  - 장영자의 1, 특정가림(사기), 2시, 423호, 2회

###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발행!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93년 8월부터 94년 2월초-의 <인권하루소식>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였습니다.

주제별 색인을 넣어 특정사건을 찾아보는데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인권상황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연구자 등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우송해 드립니다.

값 : 1만 5천원

(4월 현재 구독료 납입충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하고 있습니다)

## 외롭게 숨진 고 김광삼씨 추모제

### 8일 출소장기수의 여성 본인의사에 맡겨야

지난 8일 오후4시 출소 비전향장기수 고김광삼씨의 추모제가 장기수와 민가협 회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 꽃동네 교역소에서 치뤄졌다. 감호소 생활을 같이한 이종씨는 "32년 감옥살이중 전향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보호 감호처분으로 인한 8년간의 감호살이,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된 채 누적된 병마로 가족은 물론 동지도 지켜보지 못한 채 죽게한 것이 이른바 법이란 말인가"고 통탄해 했다.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은 한결

같이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군세계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추모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땀장조차 없이 초라한 무덤을 보며 쓸쓸하게 숨진 김씨가 떠오르는 듯 매우 침통해 했다. 숨진 김씨는 55년 군산에서 체포, 20년형을 받고 75년 만기출소했다가 77년 반공법위반으로 재구속 3년 징역을 살고, 80년부터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던중 88년 석방되어 음성꽃동네에 수용되었다. 북한에는 4남매

### (1면에서 계속)

이라고 말했다. 고문방지를 위한 조치로 특히 신문·구속기관 등이 분리되어야 하며 고문사실을 보고하는 장치로 독자조사기관인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오씨는 "공무원의 교육과정에서 고문이 범죄행위며 어떤 고문명령도 거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8월 UN에서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하겠다고 한 약속을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빨리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조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정신질환에 관련된 법이 전혀 없다"며 고문배상제도가 전혀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조교수는 또 고문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 속에서의 관리서비스체계와 의료보함에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부분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극적인 고문사태홍보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집에는 11명의 고문후유증 피해 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었으며, 이중 학생시위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강환운씨와 화성연쇄살인범으로 지목받아 연행된 뒤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는 김종경씨의 고문피해사례를 그 가족이 증언했다.

86년 11월 거리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끌려가 쇠파이프 등으로 구타당하고 영등포구치소에서 고춧가루를 탄 자장면 먹이기 고문을 당한 강환운(30.당시 중앙대1)씨의 누나 강희숙(33)씨는 "동생이 출소한 뒤 환청에 사로잡히는 등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며 울먹였다.

같은 해 4월 시위도중 연행돼 구치소로 넘겨진 뒤 정벌방에 갇혀 집단구타를 당한 김복영(29. 당시 연세대 3)씨의 누나(33)는 "너희들은 항상 나의 뇌수에 칼침을 꽂고 나의 꿈은 항상 피비린내로 얼룩졌다"고 써놓은 김씨의 일기장을 읽으며 흐느끼기도 했다.

지난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경찰에 끌려갔다 고문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한 김종경(43)씨의 부인 오윤자(40)씨는 "순박했던 남편이 고문을 당한 뒤부터는 손이 떨리고 헛소리를 하는 등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말았다"며 치를 떨었다.

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꽃동네에는 유한옥(82)씨가 모시겠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거이전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민법연 '민주법학' 7호

###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등 특집

진보적인 소장 법률학도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노현, 방동대 교수, 민법연)가 『민주법학』 7호를 펴냈다. 그동안 실천적인 법학의 연구를 기치로 내걸고 활동해온 민법연이 펴낸 『민주법학』 7호에는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의 현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민법연은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뒤에도 우리나라의 인권현실은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국제화·개방화가 강조되고 있는 지금 국제인권법의 기준에서-우리 인권현실을 냉철하게 진단, 보다 철저한 인권보장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뒤늦게나마 작년 6월 열린 유엔세계인권대회와 관련된 내용을 특집으로 다뤘다. 특집에는 인권대회에 직접참가한 사람이 쓴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이대훈),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각 인권분야를 진단한 '문민정부, 인권 1년의 현황과 과제'(박종규), 과거청산과 인권교육의 측면에서 본 '문민정부 1년의 인권정책:내용과 평가'(박노현)등과 미국의 국가안보관련 사건을 당시 사회상황과 언론보도 등을 심층추적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장호순)가 실려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논의와 한-미간 상호조약의 문제점을 헌법과 국제법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점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의 방향'(임재홍), '경영참여운동 시

론'(김성오)에서는 노동자 경영참여론을 운동론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또 주목할 만한 논문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해게모니 개념을 이용하여 '권리'의의를 분석, 재판을 통한 권리투쟁이 변혁운동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영국의 법사회학자 알란 헨트의 '권리는 진보적 사회이념에 기여할 수 있는가?'(이상수역)가 소개되어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우리 입법의 과제를 다룬 '열린 법학'을 위하여-입법에 관한 연구'(이상영), 헌법재판관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밝힌 '통계로 본 헌법재판'(김종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헌법실천' 등이 실려있다.

관악사 펴냄, 370쪽, 6천원 (문의처 : 740-4590,2)

## 해고노동자, 복직요구

### 11일 한진노동자

'한진그룹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위원회'(의장 안경호, 한해투) 회원 10여명은 11일 남대문로2가 한진그룹 해운센터 앞에서 해고자 원복회복과 회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가 5·6공 때의 해고노동자 복직을 약속했는데도 한진그룹은 40여명의 해직자들에 대해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해고노동자가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한진그룹에 "해고노동자들을 조속히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했다.

# 檢-警 고문등 가혹행위 피해

## 국가상대 잇단 損賠訴

23 11/9

검정청 수사기관의 가  
 혹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  
 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하고 있다. 91년  
 12월 서울판이구 불천동  
 대로변 삼인사건의 범인으  
 로 구속된 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  
 은 具完會씨(30·서울판이  
 구 불천동)는 8일 경찰주  
 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천6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  
 에 냈다.具씨는 소장에서

91년 12월 평소처럼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데 K경  
 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살  
 인사건의 범인이라며 강제  
 연행한 뒤 양손을 뒤로 묶  
 고 기도를 넘어 비트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며 「또한  
 검찰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만을 갖고 구속가소하

는 바람에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작년 11월 항  
 소심에서 무죄선고로 풀려  
 날 때까지 3백10일을 안이  
 나 억울하게 구속당했다」  
 고 주장했다. 지난 10월에  
 는 신문서 위조혐의로 구  
 속기소됐으나 무죄 확정판  
 결을 받은 李貴男씨(서울

양천구 신정동)가 2억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시국판현 사건으로  
 구속됐던 文國顯씨(33·연  
 세대 철학과 졸)는 조사  
 도중의 가혹행위로 정신질  
 환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역시 2억원의 손해소송을  
 냈다. <呂始東기자>

저의 남편(문국진)은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오가며 청춘을 보낸 사람입니다. 남편은 79년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하다가 구속, 고문을 당해 정신분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한 바 있고 지난달 26일 또다시 구로동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편은 연대 철학과 2학년 재학 당시 80년 봄에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이적서적이란 증거물로 채택되어 반공법으로 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 86년 3월 '보임·다산 조직사건'으로 전국에 지명 수배돼 그해 초겨울 자수,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직후 남편은 자기가 눈 오줌을 먹고 발기뻐은 채로 "나는 공산

일이 보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직장을 나갔습니다. 정신분열증이 걸리기 전 남편은 말수는 적었지만 사려깊고 유머도 있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남편의 나이 이제 34세. 엄마 아빠의 속정을 느껴가며 한창 예쁜 짓을 하고 있는 천진한 딸아이와 부둥켜 안고 절망하기도 여러 차례. 면회간 저를 보며 남편은 "몸이 피곤해서 어찌느냐"면서 괜한 눈으로 읊니다.

인락한 삶을 바라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다른 가정을 부러워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내 남편의 고통을 함께 겪어주고 껴주어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

## 투옥과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 5공이 남편에게 남긴 고통 안타까워

주의자가 아니다"며 광란하는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으나 형사들은 일부러 미친 척 한다며 독방에 가두고 발병할 때마다 구두발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찼습니다. 그 즈음 '건국대 사태'가 터져 경찰서가 바빠지면서 남편은 한달 동안이나 그 상태로 방치되다가 결국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관비로 입원했습니다.

그 당시 의사는 남편이 "숨어서 지내느라 병이 든 것 같다. 머리가 뛰어나고 심성이 부드러운 사회에 단단히 한 몫을 할 사람이었는데 안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6차례 재발이 되어 거의 한해에 한번씩 입원을 했는데, 한번 입원을 하면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집에 돌아옵니다. 남편은 입원할 때마다 "누가 나를 미행한다. 집안에 도청이 돼있다. 안기부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며 공포와 불안증세를 보입니다. 90년 10월 경에 입원할 때도 "안기부에서 너를 감간하지 않았느냐. 나의 행동을 일

을 더이상 주저않아 지켜보지 못하겠습니다. 방을 빼달라고 하는 주인 집 아주머니는 우리 딸아이와 노는 자신의 애를 데려가버리기도 합니다.

80년대 살얼음판 같던 제5공화국 시절 소위 '운동권' 사람들에게 자행되었던 무자비한 투옥, 고문의 현장 속에서 한 인간이 이렇게 파괴되었음을 세상에 알립니다. 한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시킨 잔혹한 고문, 고문의 두려움으로 정신분열을 일으킨 사람을 미친척한다며 방치한 살인적인 행위는 이제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대화를 이루려는 문명정부라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간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껴안고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여할 것입니다. 그런 몸짓들이 모여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 사회는 극에서 극이 아닌 국민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윤연옥/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 226-19호 5/4

어서 오십시오. 이번은  
평화의 땀, 울곡감사코스  
이어 5.6공 고문의 실상  
코스입니다



18일자(이제)그림판이 상천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사과드립니다.

93. 7. 30. 한겨레

### 동네방네

아까운 젊음을 구치소와 정신 병원에 '저당잡힌' 남편을 지켜 보는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

최근 은몸이 공공 목인 채 또 한차례 정신병원으로 실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윤연옥(31)

씨의 두 눈에는 이미 눈물마저 말라 있었다.

윤씨의 남편 문국진(33)씨가 정신병원을 드나든 것은 이번이 벌써 여섯번째. 문씨가 이런 '고통의 사슬'에 올라매이게 된 것은 신군부통치의 막이 오르던 지난 80년으로 거슬러올라 간다.

당시 연세대 철학과에 다니며 학생운동에 몸담고 있던 문씨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 때문에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혐의로 붙들려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

공분실로 끌려갔다.

문씨는 이곳에서 꼬박 사흘 동안 두들겨 맞고 일주일 남짓 가혹한 고문을 당한 뒤 구치소로 넘겨져 3개월 뒤 풀려났다.

그 뒤 조금씩 이상증세를 보이던 문씨가 정신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한 것은 86년 말부터였다. 이른바 '보임·다산사건'의

### 눈물마저 빼앗아버린 '고문망령'

로 수배를 당하면서 80년 때 당한 고문의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공포가 되살아난 것이다. 문씨는 도괴생활 1개월 남짓만에 병세 악화로 지수했으나 증세가 심해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병원치료로 조금씩 회복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다가 곧 병이 재발해 입·퇴원을 반복해야 했다. 다시 입원할 때마다 회복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증세도 심해졌다. 이 때마다 그는 마치 타임머신이라도 탄 것

처럼 '고문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갔으며, 최근에는 "안기부 프락치"라며 부인 윤씨의 목을 조를 정도로 병세가 나빠졌다.

그동안 부인 윤씨는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어린 딸을 꺼안고 소리없이 운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또 문씨의 '발작'이 심할 때는 너무 무서워 달아나

기도 했으며, 집주인의 독촉으로 이삿짐을 싸는 일도 잦았다.

"인רח한 삶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인간이 철저히 파괴돼 가는 모습을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이젠 절망하기에도 지쳐버린 윤씨는 "군사정권 시절 무자비한 투옥과 고문 속에서 인간성이 파괴되어 버린 사람들의 고통을 겪었고 치유하지 못한다면 참다운 정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따금씩 돌아오는 남편의 맑은 눈동자를 안타까이 그릴 뿐이었다. 박종언 기자



李成株 편집부국장

# 법정

과거는 물어야 하나 묻지 말아야 하나. 우리의 한 세대전의 노랜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했다. 1백여년전에 나온 소설 「더버빌사의 테스」에서 마블이 순결했던 테스는 첫날밤 묻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 결과는 처참한 비극이었다.

남편도 과거가 있었지만 비극의 드라마는 여자쪽으로만 진행됐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비극의 배경인 道德의 二重기준은 아직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지 요즘 西洋의 女權운동가들은 이런 충고도 한다. 『스토르 판리합 능력이 없다면 아예 일을 저지르지 말라』

사회현실을 떠난 개인이란 있을 수 없다 해도 역시 私의 성격이 강한 문제는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하다. 자기 존재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에컨대 허다한 人生상담자들이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하라」는 충고를 한다. 하지만 그 말이 현실적 조건성은 있다 해도 반면에 얼마나 많은 人間의 眞心을 배반하는 것인가. 확실히 개인문제는 迷宮을 벗어

나기 어렵다. 제3자가 합부로 심판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순전히 公의 문제는 명쾌하다. 公의 사건의 과거는 소상히 밝혀지고 여러 시각에서 비판되어야 하고 그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심판되어야 한다. 과거가 무명해져야 가만히 未來로 전진할 수 있다.

왜 과거는 미래를 위한 거울이라 고 하는가. 그곳에 교훈이 있기 때

문이다. 그런데 그 과거를 먼지 낀 거울로 남겨 희미하게 하자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일시 方便 이 歷史의 진전보다 중요한 단막 이가.」

# 과거는 물어야 한다

現政府는 압다시피 이 사건을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했다. 이 말의 함축은 法的 처리보다 역사의 記述에 맡기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심판은 「역사의 자연스런 흐름」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고 조장을 낸 피해자들은 누구의 사주에 의해 행동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또한 앞으로 검찰이 사명감을 갖고 조사한다면, 재판관이 용기와 良心을 갖고 재판한다면 이것 또한 역사의 「인스런 흐름」이다. 만약 政府가 「眞心을 갖고 검찰의 조사나 재판에 眞誠을 끼친다면 이것은 역사의 자연스런 흐름을 왜곡하는 것이요 「眞心한 역사와 심판을 모두 하는 것이다.」

12.12사건은 「선명한 쿠데타」와

서司法심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 옛 말대로 이기면 羞恥, 지면 恥의 라는 논리인데 사실 이제껏 이런 논리대로 돼 왔다. 6共시절에도 고소가 있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졌다. 金泳三 정부가 이젠 아니냐 국민이 이긴 것이다. 따라서 이긴자 즉 國民이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다

단 검찰이나 재판소는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처리할 따름이다. 12.12사건의 주동자중 두사람이 前任대통령으로서 그 위신을 존중해 줘야 한다며 反對論을 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대한 眞誠은 간단하다. 「眞心을 도대체 王朝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말로만 民主主義를 떠들면서 意識의 불은 신분전환위주의에 빠져있는 자

들이 이땅에는 예상외로 많다. 개인적인 所見이지만 12.12에 이 은 일련의 權力장악과정은 法的인 제를 떠나 政治史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反動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네들은 혼란을 執權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혼란은 왜 야기되었는가. 음모의 꿈틀거리기가 보였기에 소용가 일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12.12와 5.18 때문에 빚어진 참극의 책임은 보다 구체적인 성격을 띤다. 수많은 희생자중 日前에 한 신문에 보도된 文容진짜(33)의 경우엔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되새겨 준다. 文씨의 비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옛날처럼 다시 부인 물이 되었다. 병중 부의 정신병원에 실려간 것이다. 80년 연세대 재향시

절 경찰의 對共분실에서 고문받고 그는 정신이상 증세를 일으켰다. 한동안 靑島다가 발작을 일으킨다. 최근에 잠자다가 아내의 목을 조르면서 「안기부 프락치야」 하고 소리치기도 했다. 풀리자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 윤영옥씨(31)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물이 다 말라 버린 것이다」

음 음 일부에서는 매일 누가 조사 받고 누가 구속되었는지 하는 뉴스에 노년들을 내면서 이제 과거는 그만 두라고 내일을 설계하자고 주장한다. 그런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양은리, 그리고 밖으로 뻗어나갈 시기에 안에서만 부닥거리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과거의 청산없이 미래의 도약이란 있을 수 없다. 위기 위해서는 땅이 단단해야 한다.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않고 어떻게 뿔수 있었는가.

과거청산을 이런 관점에서 음미했으면 한다. 누구도 과거에 발붙이지 못한 것을 축하하지 않는다.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과거를 명 확히 하는 것뿐이다.

12.12사건은 「선명한 쿠데타」와



###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는 문국진씨 아내 윤연옥 (총정교회)

# “민주화운동 헌신결과가 고문 후유증이라니...”



◇문국진씨의 부인인 윤연옥씨는 오늘도 고문퇴치운동을 펼치고 있다.

“인간성을 송두리채 말살시키는 고문은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합니다. 80년대 예수의 삶을 본받아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한 청년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제 남편뿐만 아니라 이땅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저는 한 젊은이의 한 맺힌 청춘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86년 보임·다산 사건으로 수배·구속된후 극심한 고문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에 걸려 신음하는 문국진씨의 아내 윤연옥씨는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면회하러, 직장생활로 생계를 꾸리려 바쁘지만 하다. 또 그는 문씨의 사건에 대한 재판청구를 해 놓고 있어 8월중 있을 재판준비에도 여념이 없다.

“저의 남편은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오가며 청춘을 보낸 사람”이라고 소개한 윤연옥씨는 “이 사회가 민주화를 위해 고통당한 자들의 아픔을 껴안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앞으로도 극에서 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문국진씨는 79년에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 89년 졸업,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하다가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정신분열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따라서 윤씨가 출판사를 다니며 고정생활비를 벌고 있으며 4살된 딸아이(해인)와 함께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전세방에 살고 있다.

문씨는 80년대 중반 성남에서

지역노동운동에 투신해 치열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정권의 구조적인 악폐는 그에게 정신분열증, 피해망상증, 인간관계 망상, 편집증이란 병을 안겨줬다. 그가 이러한 병명으로 입원한 것도 86년부터 91년까지 한해에 한번씩 다섯차례나 된다.

문씨는 지난 6월26일 고대 부속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고문후유증이 재차 도진것.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이 약하므로 작은 일에도 보통사람보다 몇배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에 약간의 자극이 가해지자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문씨는 80년 봄에 학교도서관에서 빌린책이 이적증거물이란

가 결국 증곡동 정신병원에 관비로 입원했다. 이후 현재까지 여섯차례 병이 재발돼 거의 한해에 한번씩 입원을 했는데, 한번 입원을 하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집에 돌아왔다.

건강이 좋아지면 문씨는 다시 직장에 다녔다. 윤연옥씨는 “맞벌이 부부가 보통 그렇지만 제가 너무나 피곤해 할때면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안 당해도 되니 그래도 살만하지 않느냐’면서 자신과 저를 위로했죠. 정신분열증에 걸리기 전 남편은 말수는 적었지만 사려깊고 유머도 있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고 회고한다.

합니다”라며 도리어 삶에 대한 강한 감사와 아울러 아내를 위로 하고 있다.

문국진씨의 나이 이제 34세, 엄마 아빠의 속정을 느껴가며 한창 예쁜짓을 하는 천진한 딸 아이와 절망하기에도 지친 아내를 두고 그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면회간 윤씨를 보며 그의 남편은 “몸이 피곤해서 어찌느냐”면서 쾅한 눈으로 울기만 한다.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잠자는 딸아이를 껴안고 남편 몰래 운적도 많다는 윤연옥씨. 그는 안락한 삶을 바라지도 않으며

에게 자행되었던 무자비한 투옥, 고문의 현장속에서 남편의 인간성이 처절히 파괴되었다고 밝히는 윤씨는 “한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시킨 잔혹한 고문, 고문의 두려움으로 정신분열을 일으킨 사람을 미친척 한다며 그대로 방치한 살인적인 행위, 이제 그 잔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윤씨는 남편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배상을 위해 소송을 걸어 국기를 상대로 투쟁의 외로운 길에 나섰다. 8월초 문국진대책위원회(336-2951)가 구성돼 본격적인 구명 및 소송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대 화합을 이루려는 문민정부라면 개인의 뉘우로 돌아간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껴안고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는 윤씨는 “절망스럽진 않다. 삶은 좋은 한반도 이땅에 사는 한 주체로 견디고 아껴야 할줄로 안다. 다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고문, 그러한 반하나님적인 고문퇴치를 위해 투쟁해, 더이상 내 남편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고뇌하는 예수”, ‘인간되신 예수’란 신앙적 결단으로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으려 했던 문국진씨, 그러나 그는 정권과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 신음하고 있다.

## 보임·다산사건으로 구속 극심한 고문 당해 “절망스럽진 않다...” 고문퇴치 위해 투쟁

이유로 반공법으로 구속된후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 86년 3월 보임·다산 조직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되었다. 그해 초겨울 자수해 청량리경찰서에 재수감되었다. 수배생활과 함께 고문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정신을 극도로 불안하게 했다. 구속직후 문씨는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며 광란하는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으나, 형사들이 일부러 미친척한다며 독방에 가두며 발병할 때마다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구둑발로 찢었다고 한다.

그후 문씨는 한달반 동안이나 그 상태로 경찰서에서 방치되다

비록 지금 병중에 있지만 문씨의 집필 솜씨는 남다르다고 윤연옥씨는 말한다. 입원하기 3일전인 6월 23일 문씨는 그의 아내에게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적은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를 통해 “신뢰하고 믿으며 따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겠지만 고뇌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고통·참피·수치스러움을 회피하기를 원했던 인간의 아들, 예수와도 같이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미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하고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평화롭게 사는 다른 가정을 부러워 한적도 없단다. 다만 남편의 고통을 함께 껴안고 껴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 왔다.

그러나 윤씨는 “한 인간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더이상 주저앉아 지켜보지 못하겠습니다. 주인집에서는 방을 빼달라고 하고, 어떤 아이 엄마는 우리 딸 아이와 노는 자기 애를 데려가 기도 합니다. 한 가정이 무참히 짓밟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라며 토로한다.

80년대 살얼음판 같은 5공화국 시절, 소위 ‘운동권’사람들

### 신 앙 상 담

있습니대만 특히 장로교 합동축 헌법에 써야하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재정을 맡아 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성실히 도와

# 「左傾서적」出版등 14명拘束

## 관련자 14명 수배... 슬라이드 6種도 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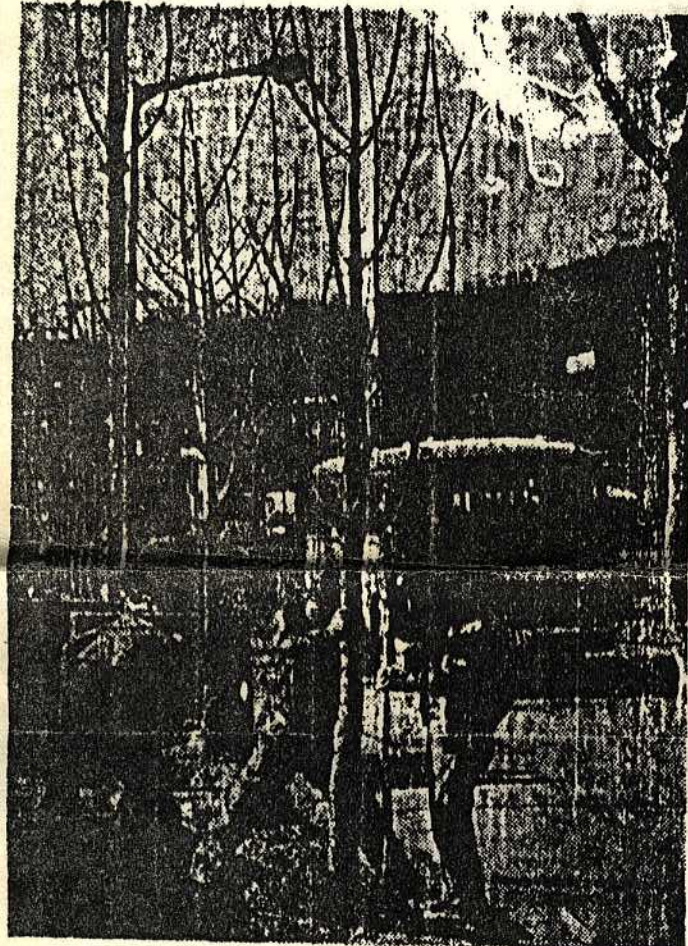
### “運動圈 학생·그들로자 背後조종” 불온油印物로 意識化 교육도

#### 日語·英語版서적 4번외권틀림오와도 연쇄

【서울 14일 특파원 보도】 서울에서 출판된 4번외권틀림오와도 연쇄(이하 4번외권틀림오와도)는 운동권 학생·그들로자 背後조종(背後조종)을 주제로 한 불온油印物(불온油印物)로 意識化 교육(意識化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4번외권틀림오와도는 1985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출판된 4번외권틀림오와도(이하 4번외권틀림오와도)는 운동권 학생·그들로자 背後조종을 주제로 한 불온油印物(불온油印物)로 意識化 교육(意識化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4번외권틀림오와도는 1985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출판된 4번외권틀림오와도(이하 4번외권틀림오와도)는 운동권 학생·그들로자 背後조종을 주제로 한 불온油印物(불온油印物)로 意識化 교육(意識化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4번외권틀림오와도는 1985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출판된 4번외권틀림오와도(이하 4번외권틀림오와도)는 운동권 학생·그들로자 背後조종을 주제로 한 불온油印物(불온油印物)로 意識化 교육(意識化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 ◇가로수 교체작업

수상하물이 서 있던 가로수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로수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로수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6월 추가회수

6월 추가회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6월 추가회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6월 추가회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未託送 화

未託送 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未託送 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未託送 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南寬그림 모두 國內처분한단

南寬그림 모두 國內처분한단. 南寬그림 모두 國內처분한단. 南寬그림 모두 國內처분한단.

### 明河정안 신도

明河정안 신도. 明河정안 신도. 明河정안 신도.

### 합告知書法的 근거

합告知書法的 근거. 합告知書法的 근거. 합告知書法的 근거.

# 北韓서 전쟁 佛의 蘇·東國

全대통령 佛紙회견 한국민주



시미리서 정경 佛紙회견이 12일 「로잔」에서

【로잔 21일路透電】 佛紙회견이 12일 「로잔」에서 시미리서 정경 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佛紙회견은 한국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한국전쟁의 종전을 촉구했다. 또한, 북반구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로잔 21일路透電】 佛紙회견은 12일 「로잔」에서 시미리서 정경 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佛紙회견은 한국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한국전쟁의 종전을 촉구했다. 또한, 북반구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로잔 21일路透電】 佛紙회견은 12일 「로잔」에서 시미리서 정경 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佛紙회견은 한국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한국전쟁의 종전을 촉구했다. 또한, 북반구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로잔 21일路透電】 佛紙회견은 12일 「로잔」에서 시미리서 정경 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佛紙회견은 한국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한국전쟁의 종전을 촉구했다. 또한, 북반구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로잔 21일路透電】 佛紙회견은 12일 「로잔」에서 시미리서 정경 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佛紙회견은 한국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한국전쟁의 종전을 촉구했다. 또한, 북반구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 左傾이념書籍 總판 14명구수

### 治安本部 日서 百여種들여와 大學街보급

#### 14명 手配 油印物 등 5千여점 알수

【서울 21일路透電】 治安本部가 日本에서 100여종의 左傾이념書籍을 總판 14명구수로 大學街에 보급했다. 이 책들은 5천여점의 油印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日本의 左傾이념을 한국에 전파하려는 시도가 의심된다.

【서울 21일路透電】 治安本部가 日本에서 100여종의 左傾이념書籍을 總판 14명구수로 大學街에 보급했다. 이 책들은 5천여점의 油印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日本의 左傾이념을 한국에 전파하려는 시도가 의심된다.

【서울 21일路透電】 治安本部가 日本에서 100여종의 左傾이념書籍을 總판 14명구수로 大學街에 보급했다. 이 책들은 5천여점의 油印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日本의 左傾이념을 한국에 전파하려는 시도가 의심된다.

## 유럽市場진출 多邊化 轉機로

【서울 21일路透電】 유럽市場에 진출하기 위한 다변화 전환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는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21일路透電】 유럽市場에 진출하기 위한 다변화 전환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는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21일路透電】 유럽市場에 진출하기 위한 다변화 전환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는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거액貸出억제 緊縮강화

### 企業인 會社債로 資金조달유도

【서울 21일路透電】 거액의 대출을 억제하고 긴축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문사

이문사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출판하고 있다. 특히, 역사, 문학, 과학 분야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  
HYUNDAI DEPARTMENT STORE  
개점 10:30, 폐점 22:00 (식당가게점 22:00)  
대표전화: 547-2233

# 軍환자집업

# 명적리수영

三民國民衆日報(21) 4월 4일(수) 5월 5일(목) 5월 6일(금) 5월 7일(토) 5월 8일(일) 5월 9일(월) 5월 10일(화) 5월 11일(수) 5월 12일(목) 5월 13일(금) 5월 14일(토) 5월 15일(일) 5월 16일(월) 5월 17일(화) 5월 18일(수) 5월 19일(목) 5월 20일(금) 5월 21일(토) 5월 22일(일) 5월 23일(월) 5월 24일(화) 5월 25일(수) 5월 26일(목) 5월 27일(금) 5월 28일(토) 5월 29일(일) 5월 30일(월) 5월 31일(화)

三民國民衆日報(21) 4월 4일(수) 5월 5일(목) 5월 6일(금) 5월 7일(토) 5월 8일(일) 5월 9일(월) 5월 10일(화) 5월 11일(수) 5월 12일(목) 5월 13일(금) 5월 14일(토) 5월 15일(일) 5월 16일(월) 5월 17일(화) 5월 18일(수) 5월 19일(목) 5월 20일(금) 5월 21일(토) 5월 22일(일) 5월 23일(월) 5월 24일(화) 5월 25일(수) 5월 26일(목) 5월 27일(금) 5월 28일(토) 5월 29일(일) 5월 30일(월) 5월 31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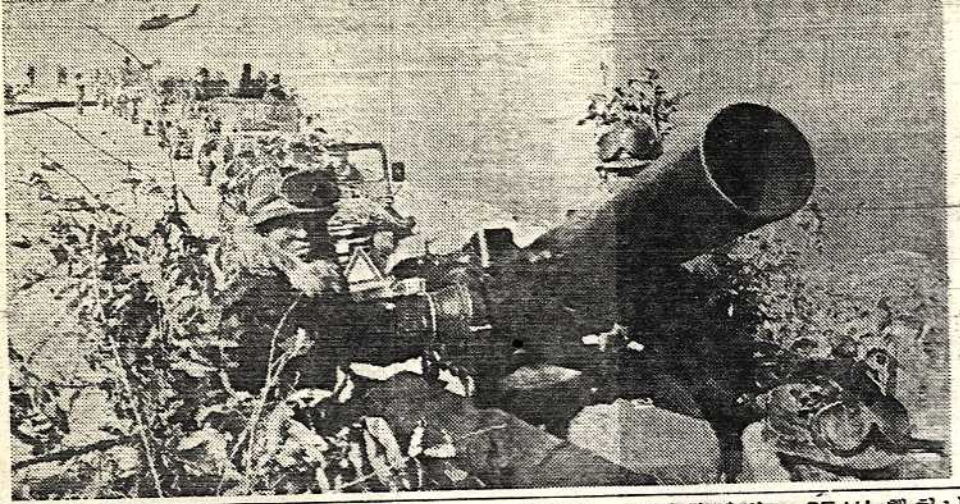
## 古代한국 빗살무늬土器 오기나와에서 多量출토

서울대 任孝喆박물관장 확인... 직접 전래...  
이곳에서 고대 한국 빗살무늬 토기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인 임효정 박사는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이 토기들은 오기나와에서 발굴되었으며, 고대 한국 문명의 발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된다.

# 不振

南區龍洞洞 新整湖 8차...  
남구 용동동 신정호 8차... 이 지역의 개발과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남부찬성...  
남부 찬성... 이 주제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최연소 변호사  
23살에 開業한 白承憲씨  
수령 23살의 최연소 변호사 백승헌 씨가 개업했다. 그는 법조계에 진출한 가장 어린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순수한 자세로 뛰겠다”  
법조계에서 순수한 자세로 뛰겠다는 다짐을 밝힌 백승헌 변호사. 그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 지역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夜間정찰비행의  
建大生들 교내示威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학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有禮禮가 돌입자 拘束  
有禮禮가 돌입자 拘束...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全泰禧가 韓半島로 歸來...  
全泰禧가 韓半島로 歸來... 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衣類의 洗濯기속사에 불  
衣類의 洗濯기속사에 불... 이 화재 사고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사랑을 드립니다. 기쁨을 드립니다.

# 定期 週末 바진세일

3.21 ▶ 3.30

현대백화점  
HYUNDAI DEPARTMENT STORE  
개점 10:30, 폐점 22:00 (식당가게점 22:00)  
대표전화: 547-2233

이슈의 자연, 자연속의 공간

1986, 3/26 바진세일

# 문국진 - 윤연옥씨 부부 군사정권에 꺾인 내 삶을 돌려주소



군사정권의 악행은 어디까지였다. 과거청산의 시대적 과제가 표류하는 속에서 여기 폭압에 짓밟힌 한 사람의 재활을 위한 몸부림이 있다. 누구에게 들을 던져야 하는가. 그의 재기는 그민의 몫인가.

노민영 (『일터』 편집차장)

## 정신병동의 맑은 눈망울

고대 구로병원 10층의 정신병동에 지금 맑은 눈망울의 한 남자가 간혀 있다. 이목구비 깨끗하고 세상을 향한 그의 눈길은 따뜻하다. 그가 아내에게 속삭이듯 확인한다.

“뒤따라 온 사람 없지? 집에 안 기부원 안 찾아왔어? 방심하면 안 돼.”

문국진씨. 서른 네 살의 그는 아내와 네 살밖에 딸 해인이를 험한 세상에 남겨두고 이곳, 정신병동에 혼자 입원해 있다.

제쳐묻는 절박한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망울을 들여다보는 그의 아내 윤연옥씨(33)는 가슴속에 눈물을 삼키고 그를 등지고 병문문을 나서면 눈물이 앞을 가려 벽을 기대잡는다.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결혼 전은 물론 결혼 후에도 병세가 나빠진 몇 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그가 남을 험담하거나 쓸데없이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해인이 아빠가 병세를 주체 못하고 고통당하는 걸 볼 때마다 억울하고 분한 생각뿐입니다.”

문국진씨는 이번 입원까지 해서 도합 여섯 번째 정신병동에 입원했

다. 그가 처음으로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것은 지난 86년 10월, 5공 정권이 기승을 부리던 때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 지수하여 들어갔던 청량리경찰서에서였다. 당시 그는 검·경찰이 ‘보임·다산 사건’으로 이름붙인 한 조직사건의 핵심활동가로 지목되어 수배중이었다. 몸을 숨겼던 자취방이 수색당하고 부모가 운영하던 옷가게가 매일같이 10여명의 경찰들에게 점령당하던 때에 부모의 인도로 청량리경찰서에 지수했던 그는 구속된 뒤 3일 후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다. “사람이 이상하니 와서 보라”는 청량리경찰서 측의 연락을 받

고 달려간 그의 부모는 사가지고 간 통닭을 보고 “나를 통닭같이 고문하려고 사왔느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아들을 보고 질겁하고 말았다.

문국진씨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 상태에서 계속 조사받았다. 수배자 검거와 특진에 골몰해 ‘그까짓 치료’가 문제일 수 없었던 형사들로부터 “수배된 동료들의 연고지를 대라”는 추궁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눈 오줌을 먹고 발가벗고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심상치 않은 증세를 보였으나 그럴 때마다 경찰, 전경들로부터 “이 새끼 미친 척 한다”며 못매를 맞았다.

그리고 나서 1개월여 만에 성동구치소 입감. 다시 독방에서 쫄쫄 뚝뚝인 채 생활했다. 어머니 김여옥씨(61)는 “그때 곧바로 치료를 받기만 했어도 이토록 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가슴을 친다. 당시 그의 부모는 애타게 검사와 변호사에게 매달렸으나 번번히 ‘알았다’는 말뿐이었고 담당형사에게서 “재수가 없다. 건대 일(86년 10월 말 경찰진압에 맞선 학생들의 건국대 농성사건을 말함)이 터져 미뤄지고 있다. 기다려라”는 기가막힌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성동구치소 이감 전에 경찰들과 함께 중곡동 정신병원에 보이며 간격도 있어요. 그때 국진이는 누가 보아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몸부림치고 소리소리지르고…… 그런데도 담당의사는 보고 ‘괜찮다’고 했더니봐요. 아마 경찰들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거나 수사에 필요했던가 봐요. 결국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성동구치소에서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으로 옮긴 것은 그가 최초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 뒤 한 달 반이나 지난 그 해 12월 12일이었다.

### 정신질환 상태로 한 달 반동안 방치

86년 구속 후 보인 그의 첫 정신질환의 연원을 따지자면 멀리 80년 10월 신군부의 국보위 시절로 이어진다. 당시 연세대 철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던 그는 새벽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에게 잠결에 끌려 나갔다. 광주항쟁 이후 휴교 상태였던 삼엄한 정국에서 학생운동을 계속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함께 연행되었던 동료들에 의하면 그것은 당시 동료학생의 밀고에 의한 연행이었다고 한다(그는 현재 안기부요원이라고 한다). 후에 문국진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서대문서 뒷골목에 따로 있던 치안본부 대공과로 곧장 끌려가 사흘동안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은 채, 발가벗기고 쌀 가마니에 들들 말려 몽둥이 타작을 당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들은 1, 2학년 학생이나 혐의가 적은 사람에게는 주로 ‘운동권 핵심을 대라’거나 ‘뭔가 하고 있는 놈 알지. 한 놈만 대라. 년 풀어줄게’하는 식으로 회유하곤 했다. 그 역시 그런 협박과 회유에 시달렸고 이런 경찰들의 요구에 입다물고 버틴 것이 고스란히 육체적 꺾박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당시만 해도 공안경찰의 천국이었던 시절인지라 서대문서 형사들은 버티는 문국진씨를 눕혀놓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대형 주전자로 코에 물을 붓는 물고문을 여러 차례 자행했고 그때마다 그는 학교

생활 초기에 선배들한테 귀동냥으로 들은 ‘물고문은 무조건 마시면 된다’는 소리대로 따라 했다가 번번이 졸도하고 사경을 헤매다 깨나기를 몇 번.

그때 함께 연행되었던 연세대 동기 광영진씨(34)는 “경찰들한테 끌려다니던 그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덜덜 떨며 다녔다”고 증언한다.

이런 폭력에 시달리던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한 사회과학 책자를 빌미로 구속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세 달만에 풀려났다. 터무니 없는 징역살이였으나 그것이 ‘법’(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시절이었다.

출감 이후에도 그는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동료들에 의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학생운동 동료였던 광진선씨(34)는 “워낙 진지하고 말수가 적었던 국진이가 징역을 살고 나온 후부터는 유독 술자리를 못 견뎠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술을 조금만 마셔도 횡설수설하고 몸을 못 가눴다. 옆자리 친구들을 꼬집고 때리는 일도 자주 있어 동료들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증언한다. 어머니 김씨는 “날 곳은 날이면 무릎이 저리고 온 몸이 쭈신다고 힘들어 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출감 이후 쓰여진 그의 일기 곳곳에는 “프락치가 되느니 운동을 그만 두겠다”는 고백적인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 당시 구속되어 당한 일들을 짐작하게도 한다. 그의 첫 출감 이후 야학활동을 함께 했던 김명교씨(33)는 “문국진씨가 자주 ‘저 놈들

한 정신질환  
86년 10월.  
던 때 국가  
배중 자수하  
상서에서였다.  
보임·다산 사  
직사건의 핵  
배중이었다.  
수색당하고  
가 매일같이  
점령당하던  
광리경찰서에  
뒤 3일 후 국  
신착란 증세를  
나 와서 보  
연락을 받



문국진씨와 부인 윤연옥씨. 그리고 이들의 외딸 해인.

한테 끌려가 무슨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운동가다'는 말을 자기최면을 걸 듯 말하곤 했다"고 증언했다.

일상적으로 연행, 수사, 구속의 위협에 직면해 있던 사회운동의 긴장 속에서 5공 정권 내내 야학활동, 사회과학 출판사 편집장 등으로 일하던 그는 마침내 5공 말기 공안조직 사건의 피의자로 쫓기게 되었고 조여오는 검거망에 밀려 자수했다가 며칠 만에 정신질환자가 되고만 것이다.

이같은 정신질환에 대해 연희신경정신과의원 김병후 원장은 "특히 피해자가 공포상황 이전에 이상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거나 지극히 양심적이고 순수할수록 심리적 공포로 인한 정신병리의 발병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진단한다.

**순결한 양심입수록 발병가능성 높아**

문국진씨의 병치레로 부모님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 특히 그의 아내 윤연옥씨의 고통은 더욱 그렇다.

"해인이 아빠는 저의 사회생활 초기 삶의 좌표를 정하던 시절에 선배이자 학습, 소모임 지도를 담당해주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이는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치밀함애다가 날카로운 분석능력을 갖고 있어서 동료들 사이에 신망이 높았지요. 같이 쫓기는 신세였다가 그의 발병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 인상 속의 그분은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듬해 그러니까 87년에 그분이 출감한 후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을 때 다시 만났는데 상대는 나했지만 전 그분이 영영 이기지 못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는 문국진씨의 담당의사 최용성씨로부터 "문국진씨가 윤양을 자주 찾던데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다. 여러모로 문국진씨에게 위로가 되어 치료에 많은 힘이 되겠다"

는 소리를 듣고 병수발을 돕게 되었고 문국진씨도 점차 회복돼 갔다. "결혼문제가 닥치고는 솔직히 두려웠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등돌리고 돌아서서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사느니 그분을 믿고 이겨보자'는 생각에 결심했지요. 이듬해 88년 9월 10일에 결혼했고 신혼여행으로 함께 꼭 한 번은 가고 싶었던 망월동 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걱정 때문에 신혼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가 병세를 이기려고 투병에 열심이었고 누구보다도 더 큰 행복도 있었습니다."

윤씨는 지금도 망월동 어느 무명 전사자의 무덤앞에 술을 따르고 소리죽여 부르던 「오월의 노래」 한 구절과 그의 눈물 젖은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던 89년 가을, 문국진씨는 아내가 임신 7개월로 무거운 몸이던 때에 이를 동안 불면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 하다가 기어이 병세가 재발하고 말았다.

"홍분하지 않게 조심하고 정기적인 휴양이나 휴식이 필요한데 투약에만 의존하고 생계 때문에 직장(동서문화사)에 나가야했던 게 원인이었겠지요. 그이는 병세가 악화되면 꼭 안기부, 경찰, 전화도청 같은 문제로 극도의 피해의식을 보이다가 쓰러집니다. 어떨 때는 나를 안기부 요원이라고 홍분하기도 했고요……"

그 후 그는 매해 발병했고 그럴 때마다 조심스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듯 가정의 평화는 해집어지고 윤연옥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해인이에게 아빠의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린 딸애를 감

싸안고 집을  
"지금도  
제게 남편은  
이 피곤해서  
로 옵니다.  
통스러워 잠  
편 몰래 운  
삶을 바라지  
가정을 부러  
인이 아빠,  
신으로 당신  
면서 부드러  
수 있지만 바

**문국진씨의 부**

문국진씨는 88년 이후에 (88년, 은누리 콘) (90년, 신술한 바 있는 번째 입원하고 요한 재활능 담당해온 의사다.

그러나 세월 화돼 왔고 재회복기간은 차감당해온 윤연에 빠뜨려놓은 어린 해인이를 과 함께 살던 노라 다짐하기 그러던 윤연을 다시 보게 된 발병 직전 학대에서 인권사추모제'를 합국진씨는 "죽는 내 가슴속의 나는 어떻게 살



싸안고 집을 뛰쳐나가야만 했다.

“지금도 조금 진정이 되면 면회간에게 남편은 ‘애 챙기라, 돈벌라, 몸이 피곤해서 어찌느냐’며 쾅한 눈으로 읊니다. 그동안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잠자는 애를 끌어안고 남편 몰래 온 적도 많습시다. 안락한 삶을 바라지도 않고 평화로운 남의 가정을 부러워도 안합니다. 우리 해인이 아빠, 충분히 쉬면서 맑은 정신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서 부드러운 속내를 잃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문국진씨의 룬, 우리의 룬

문국진씨는 병치레를 하고 있던 88년 이후에도 『반제반파쇼운동론』(88년, 온누리 간), 『혁명이론의 빈곤』(90년, 신평론 간) 등의 책을 저술한 바 있으며 이번 발병으로 여섯 번째 입원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집요한 재활능력을 보여주어 진료를 담당해온 의사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병은 악화돼 왔고 재발되어 입원할 때마다 회복기간은 점점 길어져 병치레를 감당해온 윤연옥씨를 점점 더 절망에 빠트려놓았다. 지난번 발병 때는 어린 해인이를 껴안고 다시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는 돌아가지 않겠노라 다짐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러던 윤연옥씨에게 남편의 문제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생겼다. 이번 발병 직전인 지난 6월 13일 경희대에서 인권단체들이 연 ‘민주열사추모제’를 함께 보고 오던 날, 문국진씨는 “죽느니만 못하게 살고 있는 내 가슴속의 용어리를 풀어달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밤새

워 통곡했다고 한다. 이 모습을 보며 윤연옥씨는 “남편의 문제가 결코 개인적인 발병이 아닌 만큼 오로지 둘이서 감싸고 견디려다가 지쳐 쓰러져서는 안되겠다”는 서슬푸른 다짐을 새기게 되었다고 한다.

“솔직히 남편의 병세를 혼자 치유시킬 자신은 없습니다. 결국은 한 인간이 철저히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이 듭니다. 방을 빼달라는 주인, 자기 아이를 우리 해인이라 놀지 못하게 하는 이웃들의 야박함을 탓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누가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무자비한 투옥, 고문이란 인간을 이토록 파괴했음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의 이런 다짐 속에는 두려움도 있다. 남편이 어쩌면 감추고 싶어할지도 모를 정신병력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남편에게 충격을 주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남편의 ‘냉철한 판단’을 다시 믿고 싶다.

그는 최근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게 되면서 80년에 문씨를 밀고했던 이, 서대문경찰서에서 그를 고문했던 이, 청량리경찰서 취조담당자, 그리고 성동구치소 보안과 책임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들이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사죄하지않는 한 그들이 ‘나는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진심이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 가족의 사정이 『한겨레신문』(7. 20자)에 보도된 후 윤씨는 수많은 격려 전화에 감동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문국진씨의 재차 발병 소식

과 그 아내의 결심을 들은 문국진씨의 서클 동기, 대학 동문들, 그리고 그와 인연이 있었던 많은 이들(용산고 동문들, 청암교회 교우들, ‘보임·다산 사건’ 관련자들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로 구성된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원회’(사무실: 연세대 민주동문회)는 문국진씨를 위한 정신적 물질적 원조는 물론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도 준비중이라고 한다.

이 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박래군씨(33,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는 “이번 일을 계기로 5, 6공 군사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인권파괴 행위와 피해자의 고통으로 남겨진 여러 사례들을 발굴, 정리하고 함께 대책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막 활동에 나선 ‘문국진씨 대책위’ 관계자들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오늘 한 시대를 함께 사는 모든 이들의 양심을 깨우는 소리이기도 하다.

“힘들고 고단했던, 그러면서도 정당했던 지난 시절의 싸움이 문국진씨의 몫이었다면 그의 이품을 살피고 위로하고 재기를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지금의 정부가 이런 이품을 찾아 살피지 않는다면 이 정부는 결코 지난 시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군사정권의 야만적인 폭력에 짓밟혔던 이들을 외면하면서 문민정부가 화합과 단결을 운운하는 것은 한낱 값싼 거짓말로 되고 말 것이다. 이 사람을 버려둘 수 있겠는가?”

◇ 청춘 앓아간 군사정권하 고문의 상흔, 문국진—윤연옥씨 부부

동경역대향보  
P. 3. P. 6. (1982)

# 정부, 개인의 몫으로 돌아간 억울한 아픔의

## 철저한 진상규명 및 치유 의지 보여야

▲이름: 문국진  
▲병명: 정신분열증, 피해망상, 인간관계망상, 편집증  
▲현재 고려대 부속병원 구로동지점 입원 중  
군사정권 시절, 칼바람의 공포와 두려움을 잊지못해 몸부림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 삶이 있다.  
「광주사태로 전국이 혼란했던 80년10월, 그때 정말 학생운동이란게 「삶 아니면 죽음」의 결단만이 존재했던 시기였지요.」 이렇게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사람은 문국진씨의 아내이자 본교 82학번 선배인 윤연옥씨이다.  
문국진씨가 연세대 철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시절, 프락치 활동을 하던 같은 학교 학생의 손가락에 지

목되어 잡혀간 서대문 경찰서 뒷골목 치안본부 대공과에서 그의 고문은 시작되었다.  
「3일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발가벗긴 후 쌀가마니로 둘둘말아 놓고 무조건 때리기만 했습니다. 저녁이면 감방으로 돌아왔다가 새벽이 되면 다시 공포감에 휩싸인 상태로 골방에 끌려가 맞는 거지요. 그런후 입을 수건으로 가리고 대형 주전자로 코에 계속 물을 붓는 물고문으로 여러차례 혼질을 했지요. 보다는 못한 서대문 경사가 이를 말할 정도였다니까요.」  
그후 문국진씨는 반공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1년형에 2년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개월만에 풀려났다.

그런데 86년3월25일 「보임·다산 조직사건」(보임, 다산은 성수동에 있는 기획실 이름)으로 12명이 구속되고, 1.2주 후 백원담(백기완씨의 딸), 문국진씨가 전국에 지명수배되면서 조직사건으로 신문에 발표되었다. 당시 휴학중이었던 문국진씨는 몸을 숨겼던 자취방이 수색당하고 부모가 운영하던 옷가게가 매일같이 10여명의 경찰들에게 점령당하자 10월26일(7개월후) 부모의 인도로 청량리 경찰서에 자수했다. 그곳에서 또다시 3일동안 잠을 못자고 자백을 강요받던 중 문국진씨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부모가 사간 통닭을 보고는 「나를 통닭처럼 고문시키려고 사 왔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오줌을 먹는 등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난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본 경찰들은 「이 새끼 일부터 미친척 한다.며 오히려 구두발로 차곤 했습니다.」더욱이 10월28일 건국대 방화점거농성사건이 일어나 많은 학생들이 검거되자 문국진씨를 한달반(조사기간은 보통 20일 이상은 초과될 수 없다.)동안이나 그 상태로 방치해 두었다고 한다.  
「중간에 한번 경희대 병원에 경찰과 함께 간적이 있었는데 의사는 남편을 발가벗긴 채 침대에 누이고 성기를 몇차례 움직여본 뒤 별 이상이 없다며 경찰서로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은 당시 의사가 자신의 사지와 성기를 자르고 눈알을 뺀 후 전향을 강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

니다.」 결국 12월12일 관비로 중국 독 정신병원에 입원, 한해 한차례씩 재발하는 상황이다.  
이후 88년9월 문국진씨와 결혼하여 현재 딸(해인)아이를 두고 있는 윤연옥씨는 문국진씨 고문피해 대책위 준비위원회(이하 대책준비위) 활동말고도 학업문제(이번에 국사학과 4학년으로 복적했음), 직장생활(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출판사 편집실에 근무), 자녀문제 등으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8월7일(土) 연세대 민주동문회와 총학생회, 교수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책준비위는 신병치료와 법정투쟁 등 활동을 위한 기금모금 사업, 법정투쟁을 위한 증거 확보, 고문문제를 사회문제화한다는 목표아래 대책위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재판을 위해 변호사 선정(백승현, 연대·80)까지 되어있는 상태이며 남편을 치료했던 의사들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국제단체에 대책위활동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때 국제단체들(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KNCC등)로부터 기금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엠네스티의 경우 청와대

로 항의편지를 해 무언의 압력을 검사에게 줄 수 있다고 한다.」  
고문의 공포로 상처받은 사람은 비단 문국진씨만이 아니다. 고문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괴로워하다가 90년 한양대 강의실에서 분실자살한 최동씨가 그러하고 바로 작년 고문으로 기도가 터지고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전희숙씨가 그러한 예이다.  
한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시킨 잔

혹한 고문의 두려움으로 정신분열을 일으킨 사람을 미친척 한다며 그대로 방치한 살인적인 행위는 이제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이 정부가 전정으로 국민대화를 이루려는 문민정부라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간 억울한 아픔과 고통을 기꺼이 꺼안고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강지은기자)

# '고문피해' 잇단 소송준비

## 5·6공 피해자 정신질환 후유증 심각 신원권 인정계기 손해배상 청구나서

한겨레. p. 3. p. 19

### 인권단체, 피해접수 소송대행키로

김근태씨 고문 경관 법정구속과 박종철씨 가족 신원권 인정 등 최근 고문피해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이 나오면서 5·6공 군사정권 시절 수사기관에 의해 고문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잇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인권단체에서는 수사기관의 인권유린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시국사범 뿐 아니라 일반사범까지 대상으로 하는 '고문피해자 고발센터'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대행키로 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문국진(33·연세대, 79학번)씨 부인 윤연옥(30)씨는 다음주 안에 국가를 상대로 고문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윤씨는 이미 의사 소견서와 증인진술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변호를 맡을 백승헌 변호사와 법률검토까지 끝낸 상태이다. 윤씨는 지난 90년부터 문씨를 치료해온 서울 정신정신과 배아무개 박사로부터 문씨의 정신질환이 '고문에 의한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라는 소견을 받아냈으며, 현재 문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고대부속 구로병원에서도 '고문에 의해 발병 가능성이 높은 증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았다.

윤씨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80년 경찰에 구속돼 심한 고문을 당한 뒤 86년 10월 시국사건으로 또 다시 연행돼 2개월 동안 청량리경찰서와 성동부치소에 갇혀 있으면서 독방에서 용품이 묶인 채 폭행을 당하는 등 고문을 당했다는 것

이다. 또 지난 90년 8월 정신분열증을 앓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건물에서 투신자살한 최동(성균관대 국문4 제적)씨의 가족들은 최씨가 이미 숨진 만큼 신원권 인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89년 4월 '인천·부천노동자회'사건으로 구속돼 정신병을 얻었던 최씨는 자살 당시 "구치소에서 가해진 음모로 폐인이나 다름없게 됐다"는 유서를 남겼으며, 최씨의 부모는 "경찰에 연행되기 전까지 멀쩡하던 아들이 고문 후유증으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해 연행됐다 풀려난 전희식(35·전 진보정당추진위 인천북감 위원장)씨도 "안기부에서 48시간 동안 심한 폭행을 당해 3주 진단이 나왔다"며 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고문피해자 고발센터'를 열어 시국사범과 일반사범 고문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고발자들을 중심으로 '고문피해자 모임'을 구성하는 한편 이들을 대신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해주기로 했다.

인권위 신승민(33) 간사는 "박종철·김근태씨 등 극히 소수의 사례를 빼고는 군사정권 시절 수사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고문과 가혹행위가 법정에서 심판받은 예가 거의 없다"며 "그동안 군사통치가 계속된 데다 피해자들이 막강한 수사기관과 맞서기에는 너무 나약한 개인에 지나지 않아 대응 움직임을 보이기 어려웠지만 민간정부에서는 이런 인권유린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발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993년 9월 20일자 한겨레 신문

### ‘고문근절’로 인권보호 새시대를

이승만 독재정권과 30여년간의 군사통치 기간동안 이 땅에 참다운 의미의 인권은 없었다. 지배이데올로기로 우익반공주의말고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철저히 탄압받아왔다. 따라서 합법성을 위장한 폭력이 난무했고, 때와 곳을 가리지 않는 테러가 자행되던 시절이었다. 그 어두웠던 세월에 신체적인 억압과 고문으로 수많은 지식인과 민초들은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마땅하게 호소할 곳도 많지 않았다. 종교단체 또는 재야인권 운동단체들의 몸부림, 국제사면위원회, 북미주한국인권연합 등 외국의 인권단체들의 활약으로 군사정권아래서의 이 나라는 추악한 인권유린국으로 낙인찍혔고, 전세계 양심은 인권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때마다 군사정권은 고문사실을 부인·은폐하기 일쑤였고, 피해자들은 정보기관의 협박에 시달린 나머지 밀실에서 치욕스러운 경험을 입 밖에 내려하지 않았다.

김근태씨 고문,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은 고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온 분수령이었다. 김씨 사건이 일어난 지 7년 11개월,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9개월 만인 지난 8월 24일 고문경관 4명이 법정구속됐다. 그 판결은 구체적 물증 없는 정황을 인정함으로써 밀실수사와 고문관행에 강력한 응징의 쐐기를 박았다. 87년 1월 남영동의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하던 중 사망한 박종철씨의 경우는 서울고법이 지난 7월 14일 유족들에게 1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 구성원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본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가족들의 권리인 ‘신원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김씨와 박씨 사건에 대한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보고 5·6공 시절 수사기관에 의해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소송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유린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시국사범뿐 아니라 일반사범까지 대상으로 하는 ‘고문피해자, 고발센터’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대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맞아 크게 두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고문피해 소송에 대해 변호사협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검·경찰이나 안기부 등에서도 인권유린에 관한 한 속죄할 것이 있다면 속죄한다는 뜻에서 사건처리에 능동적으로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필요하다면 고문행위자들의 신변보호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법률적 측면에서의 처리 방향과 함께 인권유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사회 일반의 각오가 새롭게 다져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

권유틴은 인권보호 의식이 무디어진 미개한 후진사회에서만 일어난다. 개개인이 자신의 안일만을, 종교·사회단체들 또한 집단이익의 울타리 속에서 안주한 나머지 하늘의 형상대로 부처의 모습대로, 혹은 우주의 이치로 지어진 인간이 제도적인 폭력의 틀속에서 희생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의 받은 바를 거스르는 것이다. 인권유틴이 있는 곳에 고발의 외침이 일어나 밝고 건전한 세상이 만들어진다. 정부도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비단 고문피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응달진 인권 사각지대를 원히 밝혀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개혁이 아니겠는가.

고, 피의 것을 가리지 않는 태도가 감행되면 이같은 경우... (faded text)

집단적 고문, 각종형식 고문치사사건은 고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각부... (faded text)

집회나 학회... (faded text)

공익을 위한... (faded text)

◇ 문국진씨 고문피해 문제의 현황과 전망

# 시국사건으로 구속, 정신이상증세로 여섯 차례나 입원 당시 자료·진단서 확보 등 대정부 소송준비

최근 들어 5공 당시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된 경찰이 구속되는 등 군부독재 하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인 재평가를 받게 되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특히, 88년 우리대학교를 졸업한 문국진씨의 경우 의사로부터 소견서까지 받아낸 상태라 10월초쯤 제기될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문국진씨는 지난 79년 우리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여 2학년이던 80년 반공법 위반으로 처음 구속됐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개월만에 풀려날 때까지 문씨는 물고문은 물론 온 몸이 묶인 채로 구타를 당하는 등 정신적·심리적인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86년 문씨는 이른바 '보임·다산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 치안본부와 보안사의 노동운동 탄압이 극심하던 당시에 노동이론 연구모임 '다산'과 출판활동을 통한 노동자 교육운동모임 '보임'에서 이론연구와 후배지도를 맡아 보았다는 것이 문씨의 죄목이었다. 문씨는 이 사건으로 청량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지 3일만에 처음으로 정신질환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약 20일 후 경희대병

원에 의뢰하려 했을 뿐, 문씨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고문까지 하다가 발병한 지 두달이 지난 후에야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병으로 인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후 문씨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도 89년과 90년 각각 '반제반파소운동론'과 '혁명이론의 빈곤'을 펴내는 등 저술활동을 해 왔으나 지난 6월 다시 병이 재발됨으로써 꼭 여섯 번째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90년부터 문씨를 치료해 온 등교신경정신과의원의 배기영 박사는 지난 13일 소견서를 통해 문씨의 정신질환은 '고문후유증, 혹은 고문에 의한 심인성 편집증적 장애'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정신질환 분류기준 중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국제질병분류기호는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에 대해 '명백하게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이며 이 스트레스는 환자에게 종종 공격이나 위협으로 오해된다. 그런 상태는 특히 수감자에게서 일어나기 쉽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문씨의 정신질환이 후천적인 고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세계보건기구의 분류기준 외에 널리 통용되는 기준으로 미국정신의학회의 질병분류가 있는데, 이것은 치료나 진단에 있어 고문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긴 환자와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병한 환자와의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문씨의 질환도 단순히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정신분열증'의 규정과 발병원인에 대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문씨의 질환이 고문에 의해 발생했다는 주장이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배박사는 "환자의 개인적 특성을 중시하여 치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단과 치료시에 고문피해자들을 일반 환자와과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의 경우 실제로 지난 82년 덴마크에 처음으로 전문적인 '고문희생자연구 및 재활센터'가 개설된 후 남미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질환을 일반인과 구분하여 치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문씨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문씨를 돕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부인 윤씨는 남편의 사정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언론을 통해 홍보하

면서 인권변호사 백승현씨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준식씨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인권단체에 문씨 사건에 대한 경위와 배기영 박사의 소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서류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 문씨는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치료비는 물론 재판에 쓰이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대학교 '민주동맹회'도 '문국진 선배를 돕기 위한 연세인의 모임'을 조직, 성금과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문씨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황필규 목사는 "이번 문씨의 소송이 승소할 경우 군부독재 하에서 공권력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의 전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우리나라 인권문제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 후 개혁열풍이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다. 내세우는 구호에 부합할 만큼의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과거청산과 국민회합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남석 기자>

◇ 허영교수에게 듣는다-사법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법부개혁의 지향점은 사법부의 독립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재산공개파문으로 사퇴한 것은 사법부개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퇴는 지난 7월 젊은 판사들이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독립은 법원의 인사를 통제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성향에 상관없이 평판사들이 소신있고 공정정대한 재판을

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현재는 사법고사를 합격한 후 연수원을 거쳐 성정만 좋으면 바

◇ 한  
...  
일간지  
...  
연한  
...  
고 있  
의'와  
요구  
다. 특  
...  
와 현  
도 등  
...  
구인'  
아, 서  
리나  
...  
상  
기  
...  
지면  
증거  
지면  
광고  
트 정  
보와  
51.7  
다 평  
로 나  
리가  
경쟁'  
기사  
방향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고문피해소송제기에 즈음한 경과보고회 및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발족식

## “문국진씨 고통 외면하는 이 사회의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첫걸음”

80년 이후 10여년을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며 살아온 문국진씨의 고통과 불행을 함께하려는 모임이 13일 향린교회에서 발족되었다. 이날 발족식에는 문익환 목사, 이소선 여사, 김근태씨 등 재야인사와 연대 동문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의 발족취지문에서 “문씨의 고통과 불행을 외면하는 이 사회의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첫걸음으로 이 모임에 동참”한다고 발족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어 “다시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야만적인 고문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에 앞서 김근태씨는 인사말을 통해 자신이 8년전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던 당시의 심정 등을 이야기 하면서 “고문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적 장악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며,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도 고문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족을 대표해서 문씨의 부인인 윤연옥씨는 인사말을 통해 “소송제기를 하는 지금 오히려 착잡하다”며 “지난 6년 동안은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이었고, 앞으로라도 그럴 것”이지만 상처

받은 문씨를 끝까지 지켜내고, 다른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백승헌 변호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고문피해소송의 소장 내용이 발표되었다. (2면 참조)

이날 발족한 「문국진씨와 함께하는 모임」은 86년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씨 아

버지 박정기씨가 대표를 맡았고, 부대표로는 인재근(서울민주시민연합 상임부의장)·서준식(전국연합 인권위원장)씨 등이 맡았다.

이 ‘모임’은 앞으로 문씨의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과 소송의 승리를 위한 지원사업, 고문피해자와 후유증에 대한 조사사업, 고문신고상담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 해고노동자,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후 해산

#### 15, 18일경 노동부장관과 면담하기로

12일 오후 1시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이하 전해투) 소속 해고 노동자 21명이 종로 3가에 있는 서울지방 노동청에 들어가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노동부 장관과 15, 18 양일중에 면담을 하기로 하고 농성을 해제했다.

전해투 집행위원장 강중철(31세, 창원 코리아 다코마 해고자)씨 등 21명은 「농성에 임하는 입장」을 통해 ‘정부출연기관 해고노동자의 전원 복직’,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해고자의 복직’,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수배해제 및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들이 농성에 들어가자 이창복 전국연합 상

임의장, 권영길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 공동대표 등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하였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노동단체, 학생 등 50여명이 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KNCC 인권위, 대통령에게 강기훈씨 무죄석방 탄원

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는 13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강기훈씨의 무죄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탄원서에서 인권위는 홍성은씨가 검찰의 협박 등으로 공정한 수사와 올바른 증언을 하지 못했으므로 “대통령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문민정부의 참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 알림

□양심선언 전경들의 무죄석방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경찰청 앞 항의방문

·일시: 14일 오전 10-12시  
·장소: 경찰청 앞 (서대문)  
·주최: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766-4979)

□민가협·유가협 기금마련장터

·일시: 10월 12-14일  
·장소: 서울대

### 인권운동 사랑방 광고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를 위한 제6차 월간세미나 개최  
93년 10월 21일(목) 오후 7시

### 여성운동과 인권운동

한명숙/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오랫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오신 한명숙 선생님을 모시고 여성인권의 현재 및 여성운동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장 소 :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 참가비 : 2,000원

문국진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 장

원 고 문 국 진 <주소 등 생략>  
피 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두 회

손 해 배 상 청 구 의 소 (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 송달 익일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불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1986. 3. 25. 당시 치안본부에서 수사한 속칭 '보임 다산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받고, 그 무렵 수배 조치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1986. 10. 청량리경찰서에 자수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자수후 청량리경찰서 대공과에서 경사 김낙현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은 원고를 3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같은 사건으로 수배된 백원담의 행방 등에 관해 집요한 질문을 하였고,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협박과 폭행을 행사하며 취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3일동안 부모 등 외부와의 면회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한 폐쇄된 상태에서 아무런 조력없이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취조를 당하였고, 3일이 지나 부모와 처음 면회를 했을 당시 부모가 사간 통답을 보고 "나를 통답같이 고문시키려 사왔느냐"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다. 당시 경찰은 부모와의 면회를 불허하다가 당일 사람이 이상하니 보러오라고 하여 처음 면회를 하였을 때 원고는 이와 같이 발작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하였고, 심지어 원고는 유치장안에서도 자신의 오줌을 먹는등 정신분열증세가 악화되어 경찰은 오히려 일부터 미친 척한다 하여 구둑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라. 결국 구속 만기가 되자 경찰은 원고를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원고는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켜 결국 구치소내 정신병자 수용방으로 옮겨져 수용되었다가 다시 징

역방, 독방으로 전전 수용되었으나 계속해서 그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마. 이 사이 원고의 부모는 계속해서 담당 검사에게 전문적 치료를 호소했으나, 위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송치 후 20일 가까이 되어서야 부모에게 이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원고를 중국동 소재 국립정신병원으로 보내 입원케 했으며, 동시에 기소유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바. 원고는 그후 계속해서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 증세는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Diagnosis: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으로 국제질병 분류기호 298.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위 분류 298.3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는 특히 수감자에게서 일어나기 쉽다"이며 298.4는 "298.3에 망라된 급성반응보다 더욱 지속되는 여느 형태의 심인성 혹은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다"입니다).  
사. 결국 피고는 고문을 행하고, 그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원고를 전혀 구호치 아니해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는 위 고문행위와 발병후 구호의 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제까지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해오며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소득을 올리지도 못하였고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더구나 향후에도 같은 이유로 적극, 소극적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할 것임이 명백한 바, 이 모든 손해를 금전적으로 모두 산정할 수 없을 것이나 금 10억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진단서 1통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분 1통 / 1. 위 입증방법 1통
1. 위입장 1통 / 1. 납부서

1993. 10.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백승현 이석대 김형태 조용환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 소 견 서 >

1. 인적사항 성명 : 문국진 주민등록번호 : 600316-1036211
2. 진단명 :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  
Diagnosis :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 분류기호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9-th. → ICD-9) : 298.4
3. 소견 문국진씨의 경우 미국 정신의학회의 분류기준(DSM-III-R)에 따르면, 다른 만족스러운 항목이 없어서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에 해당됨.  
그러나 가족 병력, 병적 인격, 병후의 일상생활 기능을 보아서 썩 부합되는 것 같은 인상이 아님.  
DSM-III-R이 ICD-9보다 최근에 개발되어 많은 정신과 의사가 사용하고 있으나, 병의 분류, 특히 정신분열증의 분류는 아직 모호한 면이 많고, 최종적인 것은 아님. ICD-9의 Categories 298.0~298.8은 최근의 생활경험에 주로 혹은 전적으로 기인된 정신병적 조건을 가진 작은 군에 제한되어지는 병명으로서, 특히 298.3 급성편집증적 반응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들은 특히 수감자들에게서 일어나기 쉽다"고 한정되어 있고, 298.4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은 "298.3에 망라된 급성반응보다 더욱 지속되는 여느 형태의 심인성 혹은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으로 정의됨.  
문국진씨의 경우 1980년 및 198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심한 비인도적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위 진단명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됨.  
덴마크 의학회에서 1980년 11월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135명중 101명(74.8%)에게서 한 가지 이상의 정신의학적 이상증상이 나온다는 보고를 감안할 때: 또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불안, 우울, 의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분열증양(schizophrenia-like)증상이 있다는 보고 등을 감안할 때: 고문 후유증으로서, 혹은 고문에 의한 반응성(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라는 소견을 제출함.  
1993년 9월 13일 / 의사면허 : 18571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배기영 / 동교신경정신과 의원 (333-3572)



# 판이 '봉쇄'

## 부대 철거반대



볼 수 있는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휴게소  
광고판

부대로부터 이 관계자는 "북악스카이웨이 주변에는 청와대 경호 등의 이유로 16개가 남아 있다"면서 "미관상 좋지 않아 국방부·육군 등에서 철거 여부를 검토중이나 현지 작전부대들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동 기자

# 5공연행 충격 정신이상 여대생 가족 탄원 (3/15) "살아남은게 죽은것만 못합니다"

군사정권의 강압통치 시절인 5공 초기에 안기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13년째 정신이상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최영미(32·여·인천시 남동구 구월 2동 70-33 해창아파트 3동 303호)씨의 가족들이 최씨의 치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1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냈다.

최씨의 어머니 전진숙(60)씨 등 가족들에 따르면 최씨는 인천 대한공업전문대 통신과 1년 재학중이던 81년 6월 10일 오전 7시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안기부 인천본실(이하공사) 소속의 건장한 남자 3명에게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안기부 인천본실로 연행돼 지하 취조실에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는 것이다. 최씨는 당시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지만, 시국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나 서신왕래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정도였는데 같은 학교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문체돼 연행됐다는 것이다.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협박에 시달렸다는 최씨는 풀려난 뒤 감시를 받는다는 강박관념으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려 정신분열증 환자가 됐다.

이에 따라 최씨는 82년 4월부터 87년 7월까지 무려 17차례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한글도 알아보지 못하는 기억상실증이 나타나는 등 상태가 악화하자 경찰관 출신인 아버지가 합병으로 86년 6월 숨졌으며 치료비 등으로 가산을 날렸다는 것이다.

최씨 가족들은 6·29선언 직후인 87년 7월 정부에 탄원서를 내 안기부 인천본실로부터 "영

미를 일생 동안 책임지고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고해 9월부터 안기부 지원으로 치료를 받아 기억상실증도 회복되는 등 차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는 92년 12월말 안기부가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정신병원에서 강제퇴원당하고,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준 평생의료보호 1호 진료증도 회수당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씨의 어머니 전씨는 "영미가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등 상태가 심하지만 치료비문제 때문에 입원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5공 독재가 남기고 간 상처를 문민정부에서 치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 팔당호하류 준설공사 12일 시작 오염토사 퇴적물 내년 6월까지 제거

오는 12월부터 팔당호 아래쪽 한강 하류의 오염 토사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공사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14일 팔당하류 상수원 취수원 수질개선과 수중부패 및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한강바다에 쌓인 오염토사를 제거하기로 하고, 우선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취수장 7개가 물려 있는 잠실수중보 상류~팔당호 사이 퇴적물에 대한 준설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일 토사제거 시설계를 발주한 데 이어 다음달 준설공사를 발주한 다음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잠실수중보 하류지역 토사도 연차적으로 퍼낸다는 계획 아래 올해 말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오염토사는 팔당하류 공진교에서 신곡수중보 사이 36km 구간 중에서 잠실수중보 상류 부분에 22만8천5백㎡, 잠실수중보 하류에 2백만2천5백㎡ 등 모두 2백23만1천㎡가 30~90cm 두께로 쌓여 있으며 이를 모두 제거하는 데는 약 6백억원, 잠실수중보 상류 토사제거에만 50억여원의 비용이 든다. 잠실수중보 상류~팔당호 구간에는 구의·일산·통합(보광·

독섬)·암사·성남·하류통합(선유·노랑·영등포)·인천 등 모두 7개의 취수장이 밀집돼 있으며 이들 지역 한강의 평균 수심은 2.5m로 상수원취수 때 오염물질이 함께 빨려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염토사 전용 준설선을 외국에서 들여와 강바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준설함으로써 2차오염을 방지할 경우 준설 뒤 수질개선 효과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1.11ppm에서 1.05ppm으로 5.5%, 총 질소는 1.25ppm에서 1.21ppm으로 3.2%씩 각각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등록재산 오늘부터 심사

#### 서울 공직자윤리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은호)는 14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를 위해 주요재산별(부동산, 금융재산)로 2개의 심사반을 구성해 15일부터 재산공개자 1백46명에 대한 본격 심사가 들어가 12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비공개자를 종합정리해 처리하며 비공개자 4백19명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9월 20일까지 심사를 끝낸다.

남성의류

# 인

수보 10/15(금) 단 하루!  
30% 프랑스와즈 옴므(남성)  
프랑스와즈 베베(아동)

8F 현대아트  
극단 '자유' - '내사'  
출연 : 박정자, 윤소정  
일시 : 11/21까지(오)  
화요일 낮, 일요일  
공연문의 및 예약안내

행사장 안내  
한국 여성의류 일류  
특별초대전

# 가혹행위로 정신질환

## 국가상대 2億손배소

시국사건 文國鎮씨

시국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발작을 일으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文國鎮씨(33·연대 철학과)가 죽음을 15일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발작증세를 보였는데도 수사기관이 구호의무를 게을리하고 이를 방치, 정신병으로 악화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文씨가 종인 소장에서 수배를 받던 文씨가 서울 청량리경찰서의 자수했으나 수사관의 폭행으로 재우지 않고 폭행을 하므로 구호의무를 해 정신병증세를 보였다며 「당시 검찰송치후에도 20일이 지나 뒤애야 부모에게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데도 구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文씨는 지난 86년 3월 당시 치안본부에서 수사하던 속칭 「보임다산사건」과 관련, 수배를 받아오다 같은 해 10월 자수, 서울청량리경찰서에서 3일간 조사를 받던 뒤부터 정신병을 일으켜 지금까지 7년째 부병정환을 해오고 있다.

작증세를 일으켰다"며 "이후 검찰로 송치된 뒤 정신병으로 악화됐는데도 담당검사가 20여일이 지난 뒤애야 부모에게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구호의무 불이행"이라고 주장했다.

문씨는 86년 3월 당시 치안본부에서 수사한 노동운동조직 사건인 보임다산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돼 수배를 받아오다 같은해 10월 자수해 청량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중 발작을 일으킨 뒤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으로 번져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 경찰조사받다 정신질환

### 30대, 2억 손배소송제기

86년 수사기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받던 중 발작을 일으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문국진(33·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씨가 15일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문씨의 대리인들은 소장에서 '86년 10월 시국사건인 '보임다산사건'에 연루돼 수배를 받아오던 문씨가 서울 청량리경찰서에 자수한 뒤 3일 동안 공포분위기 속에서 협박·폭행을 당하며 조사받다 발

# 한겨레 생활광고

상세한 것은 생활광고담당자 앞  
☎ 710-0417~8 (F)710-0410  
으로 상의바랍니다.



## 일림

93. 11/18

### 고문 후유증 문국진씨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

11. 18(오늘) 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796-8364, 5)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함께 할 회원도 모집합니다.

다음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구입하고픈 물건이나 파시키고자 하는 생활용품
-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료지 하시는 분
- 결혼, 회갑, 고희, 백일 및 승전 등 축하광고
- 각종 자리를 빛내주시는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문
- 많은 사람에게 알고 싶은 각종 의견문
- 개인, 개원을 비롯한 각종 영업점 소개
- 동창회, 아유회 등 특정인에게 보내는 모임이나 부음



## 모집

### 사원모집

교육 상담 교사-國, 美, 數(전공자)  
영업직 사원-학원영업 및 교재판매  
도서출판 영준교육기획사  
代)566-6338



## 구인

### 중학 영, 수강사

387-3777, 384-7408

### 편집디자인

경력3년이상 (주)유안기획  
(大)336-8749, 336-8750

### 총무

최고대우 초보자 가능 숙식제공  
한겨레신문 가리봉 02) 863-4019

## 청주 한겨레 가족모임 11월 정기모임

청주 한겨레 가족 여러분! 저무는 한 해를 보내며 '93년 마지막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주주·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때 : 11월 19일(금요일) 해진 7시
- 곳 : 식당 온고지신(☎53-9936, 중앙공원 정문앞)
- 내용 :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강연(역사적 성격과 현대사적 의미)
- 강사 : 김기만 선생님(신흥고교 역사교사 / 겨레산악회 회장)
- 회비 : 1만원
- 주최 : 한겨레신문 청주 가족모임(☎67-7668)

# 국민기자석



## 문국진씨 고문수사 진상아는분 연락을

5, 6공 군사정권 당시 극악한 고문수사로 인해 정신병(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에 걸린 문국진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요구와 구속·수배·고문수사의 척결을 위해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국가에 맞서 법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른바 '보임·다산' 사건으로 수

배를 받았던 문씨는 86년에 지수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문수사를 자행해 문씨는 기소유예로 석방된 이후 해마다 정신병이 발병해 지금도 고대부속 구로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중이다.

경찰측은 제출한 답변서에서 86년 당시 고문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 구로병원 신경정신과측은 소견서에서 "문씨의 발병은 1986년 12월 첫 입원 당시 수사과정 중 증상이 발생하여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작한 것과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로 보아, 심한 비인도적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법정 투쟁의 증거 확보를 위해 86년 10월 문씨와 함께 청량리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람을 찾고 있다. 꼭 연락이 있기를 바란다.

박효근/서울 중랑구 면목6동 315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다.

1948년 12월10일 유엔 총회 결의 제217호에 의해 채택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의 산물로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를 되돌아 보게 하는 반성문이란 의미를 지닌다.

###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이 반성문은 더 화려한 수식으로 치장되면서 계속 다시 쓰이고 있지만 인권침해와 유린은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자.

문민정부의 출범을 인권보장의 보루와 연계해 기대를 품었던 인권 운동가들은 기대가 컸던 만큼이나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악법과 인권유린은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그밖의 많은 불합리한 법에 대한 손질이 더뎠고 있는 가운데 부당한 인권 유린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옛 소련의 해체와 함께 이데올로기는 이제 더이상의 논쟁거리가 아닌데도 유독 우리 민족에게만 아직도 사상의 자유라는 숭고한 인권을 짓밟는 무서운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

### 기대했던 문민정부에 실망

인권침해의 유형을 선진국형과 후진국형으로 구분할 때 선진국형이 환경오염에 의한 인권침해처럼 시대상황과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인권침해를 의미한다면, 후진국형은 원시적 형태의 인권침해인 신체적 자유의 침해가 기본이 되는 정치적 탄압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선·후진국형 인권침해가 혼합되어 있는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후진국형 인권침해가 심해 수사기관의 불법연행과 고문시비가 심심찮



## 인권 침해 언제까지...



김 동 한

법과 인권연구소 소장

게 일고 있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살맛 나는 세상을 이룩하는 데 있다면 지금까지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김영삼 정부에 대한 아쉬움은 매우 크

다. 민주정부와 시국사건도 결맞지 않은 대비이다. 민주정부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군부독재정권의 산물인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면 개혁의지와 모순된 현상인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최근 밝힌 한국의 인권 실태는 아직도 부정적이다. 사면위 보고서는 장기수와 양심수의 존재, 국가보안법의 존재, 국제고문방지협약비준 지연, 김삼석·김은주 남매 간첩사건의 문제점 등을 지적

함으로써 한국의 인권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한가지 개선된 점은 예전엔 기자회견조차도 못하게 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 개혁위한 역사적 결단 시급

개혁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자생력을 길러온 인권운동단체들이 상당히 많다.

인권엔 관심을 갖는 단체들이 많아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눈이 많아진다는 면에서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민주화를 위해서 개혁을 한다면 여러 인권 관련 단체들이 하루빨리 기쁜 마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인권문제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정치적 인권침해의 여지를 청산하고 선진국형 인권침해의 방지와 대책에 중점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